

광주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빛났다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 레슬링팀.

〈조선이공대 제공〉



제1회 헤럴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선전한 광주체육중 선수들. 노은찬(왼쪽부터)·배지성·김성수·김고운빛·서동유. 〈광주시교육청 제공〉

제1회 헤럴드·코리아헤럴드배
조선이공대 자유형 단체전 우승
개인전서도 금 2·은 2·동 6
광주체육중은 금 3·동 2 획득

조선이공대와 광주체육중이 제1회 헤럴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에 따르면 스포츠재활학부 레슬링팀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해남군 우ש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자유형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그레코로만 60kg급 박해빈과 72kg급 맹하늘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자유형 61kg급에서 김도근과 79kg급 김정욱은 금메달을 따냈다. 57kg급 류가은과 86kg급 임동호는 은메달을, 125kg급 김희준, 65kg급 김재석, 61kg급 김태현·이중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도근(스포츠재활학과)은 최우수 선수상, 정천모 감독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광주체육중도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일궈냈다.

김성수는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51kg 체급 결승에서 8-0 테크니컬 폴 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지성은 자유형 80kg급 결승에서 기권승을 거두고 1위에 올랐다. 김고운빛은 여중부 57kg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레고로만형 48kg 서동유, 자유형 65kg 노은찬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 최근 2년 인권침해 경험 스포츠윤리센터 실태조사

전국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선수 중 20.5%가 최근 2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지도자는 15%, 심판은 13.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권침해의 대표 사례는 이동권 및 접근권 문제다. 설문 참가 선수 중 13.3%는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이동에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경험 선수 3명 중 1명은 아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어·신체 폭력 및 따돌림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0%에 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및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장애인 선수 2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차민수가 12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영암군씨름단 차민수 5번째 한라장사 등극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같은 팀 최성한 3-2로 꺾어
차민수(영암군민속씨름단)가 5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차민수가 12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

(5판 3선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인 최성환을 3-2로 꺾고 황소토폠피를 들어올렸다. 차민수는 8강전에서 이국희(중평군청)를 2-1로 제압한 뒤 4강전에서는 김보경(문경시청)을 2-0으로 꺾고 장사결정전에 진출했다. 차민수의 결승전 상대는 같은 팀 식구이자 장사결정전에서는 첫 맞대결하는 최성환이었다. 첫 번째 판에는 차민수가 잡채기를 사용하여 한 점을 먼저 가져왔지만, 두 번째 판에서는 최성환

이 밀어치기로 1-1을 만들었다. 세 번째 판은 차민수가 안다리 기술로 다시 한 점 앞서 나갔다. 하지만, 네 번째 판에서 최성환이 밀어치기로 승리,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차민수는 마지막 판에서 강력한 발다리로 최성환을 쓰러트리며 개인 통산 5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2일 미국 LA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플레이인 토너먼트 LA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오른쪽)가 볼을 잡으려고 몸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데이비스 54점...LA레이커스 PO행

NBA 연장 접전 끝 미네소타 꺾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맹활약한 미국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가 2시즌 만에 플레이오프(PO)에 나선다. 레이커스는 12일(한국시간) 휴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NBA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연장 접전 끝에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108-102로 이겼다. 서부 콘퍼런스 7번 시드를 꺾은 레이커스는 오는 16일부터 정규리그 2위 멤피스 그리즐리스(51승 31패)와 PO 1라운드를 치른다. 2019-2020시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한 레이커스는 2020-2021시즌에도 PO에 진출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11위로 정규리그를 마쳐 플레이인 토너먼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 시즌 서부 7위(43승 39패)로 플레이인 토너

먼트에 나선 레이커스는 8위 미네소타(42승 40패)를 제압하며 4시즌 만의 우승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반면 미네소타는 이날 패배로 PO 진출을 위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됐다. 9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42승 40패), 10위 오클라호마시티 선더(40승 42패) 간 맞대결 승자와 15일 한 번 더 8번 시드를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을 치른다. 미네소타로서는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도중 벤치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카일 앤더슨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고베르의 결장이 뼈아팠다. 리그 최고 골밑 수비를 자랑하는 고베르가 빠지지 미네소타는 이날 공격리바운드 12개를 내주며 제공원에서 밀렸다. 동부 콘퍼런스 8위 애틀랜타 호크스(41승 41패)도 원정에서 7위 마이애미 히트(44승 38패)를 116-105로 꺾고 7번 시드를 따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운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2관 존 워크 4
- 3관 존 워크 4, 나는 여기에 있다, 물안에서
- 4관 존 워크 4
- 5관 리바운드, 나는 여기에 있다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9관 소울메이트, 라스트 필름 쇼
- 7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에어, 나는 여기에 있다, 오토라는 남자
- 8관 씨네커플 겨울 속 외딴 성,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